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종교시설의 활용 가능성

- 교회의 노인 복지 활용성을 중심으로

Utilizing Religious Facility Space for Neighborhood Elderly

- Churches for elderly welfare

천서진* Cheon, Seojin | 서현보** Seo, Hyun-Bo

Abstract

Purpose: Religious facilities often intend to contribute to surrounding neighborhood and local community. While motivated by religious aims, churches can play a role in social welfare for elders in local community. It is obvious that the role will be different from official social welfare services from government a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hurches in the role of elderly social welfare in terms of space and program. **Methods:** Researchers interviewed management of four existing welfare programs by churches in order to understand operation of social welfare program for elders by churches. The second step was case study of four churches in Suwon City area. The potential for social welfare space use for elders was examined. **Results:** Researchers found the role of churches in providing welfare relevant programs and services but its function is not well established yet. Financial support is needed and another support is need from welfare experts. **Implications:** While churches has not well established the role in elderly welfare in local communities, churches can further develop welfare services utilizing space, manpower, and activity programs.

주제어: 종교시설, 교회, 노인, 복지, 지역사회

Keywords: Religious facility, Church, Elders, Welfare, Local community

1. 서론

1.1 연구 배경

최근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수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3% 이상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 한지 오래되었다. 또한, UN도 한국에 대하여,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으로 이미 발표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는 2030년(2026년)에 전체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처럼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은 노인 인구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 파장들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 우려는 깊어지게 고

찰하여야 할 것이며, 체계적으로 장래 고령화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계획해야 한다. 정부 및 지역 모두 심각한 문제에 까지 다른 사항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 일과 사회적 역할에서 이탈하여, 생계 유지 및 건강의 제약과 더불어, 독립한 자녀들과 교류가 줄어들고 배우자 혹은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 사별하는 경우가 많아져(신동설, 2011)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의 기회를 줄어들게 하여 자아 상실, 우울, 외로움, 성취감과 존엄성이 취약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신동설, 2011).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노인들은, 동시에 자녀들의 독립과 노년기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책임이나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증가하나 이것이 항상 긍정적으로 노인에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소속감이나 다른 사람과의 유대가 결여될 경우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다.

* 회원, 대표,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리움(주저자: a7w7archi@naver.com)
** 이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교신저자: hyunbo.seo@uos.ac.kr)

1.2 종교시설(교회)의 사회적 역할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빈곤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김현미, 2005). 종교시설이 소외된 불우이웃돕기, 또는 노인 무료 급식서비스 뿐만 아니라 빈곤의 원인이 되는 인적자본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빈곤에 이르게 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조환희, 2018). 따라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준다든가,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 사업이나 공부방, 독서실 사업 등이 있고, 인적자본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무료이동진료, 직업훈련, 취업알선, 공동작업장 등을 들 수 있다(심우준, 2005).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키워 노인을 포함한 빈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반에 기여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저축사업, 가족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 사업을 통해 빈곤이나 가족 해체 또는 비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조환희, 2018). 예를 들어,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기보다는, 각종 헌금을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일정규모의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는, 부속실의 공간이 대부분 충족되므로, 예배당 외의 부속공간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교인을 위한 교회가 아닌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로 개선된다면,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안대현, 2013).

1.3 지역교회의 노인프로그램 실천에 대한 필요성

“일반적으로 퇴직한 노인들은 일과 사회적 역할에서 고립되어, 생계유지와 건강의 제약과 더불어, 독립한 자녀들로부터 교류 및 공경이 줄어들어 배우자 혹은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사별하는 경우가 많아져(신동설, 2011: 13)”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의 기회를 줄어들게 하여 자아 상실, 우울, 외로움, 성취감과(신동설, 2011: 13) 존엄성의 포기 등의 문제들을 생산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60세 이상 퇴직하게 되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어도 퇴직할 수밖에 없는 법적 상황하므로,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타의적 선택이며, 강제적으로 주어진 비어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년기에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반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노인의 고독과 소외, 그리고 정신적·육체적 무료함과 삶에 대한 불행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 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정된 복지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전체 노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노인복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 대부분 교회는 전체 인구 구성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으므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복지를 대비하여, 기존에 복지시설로 고려되지 않았던 시설들을 고려하

면서 현재 운영되는 교회 안에서도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다.

교회에서의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들의 우울, 불안, 불확실성, 신경성 등에 대한 것들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심리적 현상은, 신체적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여 느끼는, 심리적 충격과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점차 소외감, 고독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인들은 특히 배우자, 친구, 동료, 친지의 임종을 지켜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인 불안을 갖게 된다(신동설, 2011).” 이때 교회의 노인복지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기회를 부여하여,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가도록 도와주어, 사회적 소외감을 없애주고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회건축 안에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사례는 찾아 볼 수 있으나(김명희, 1999; 김현미, 2005; 이서영, 2006; 이태경, 2009; 임영호, 2003), 교회건축과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포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기 힘든 실정이며, ‘영리(營利)’의 목적인 노인시설들의 열악한 환경이 지배적인 상황이므로, 교회와 같이 조건 없는 ‘비영리(非營利)’ 기관에서의 노인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노인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며 이는 수원지역 교회 교인들의 설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수원지역 교인 287명을 설문하여 얻은 결과로 그 중 7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천서진, 2021).

1.4 연구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한정된 복지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전체 노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노인복지 사업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전체 인구 구성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으므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을 대비하여, 현재 운영되는 교회 안에서도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현재, 수원지역 669개의 개신교회의 대부분은 소규모 교회가 지배적이며, 중규모 교회 이상에서나 유아프로그램에서부터 장년층프로그램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2.1 교회선정

교회관계자의 협조를 통해 도면을 구할 수 있고 현장답사가 허락되는 교회들을 선정하였다. 단독으로 자립 운영하는 자기

건축물들이며, 소유권이 교회로서 지역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노인프로그램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노인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확충할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이었다. 본당(예배당) 외의 시설들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거나 '잉여공간' 사용에 대하여 교회에서 장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교회들이었다(표 1).

[표 1] 조사대상 교회건축개요

분류	서둔교회 (권선구)	수원성교회 (장안구)	명선교회 (영통구)	한사랑교회 (팔달구)
시설위치	서둔동 148-1외 1필지	울전동 230-2외 2필지	서천동 281-1외 3필지	인계동 374-43
건축년도	1979년	1999년	2002년	2000년
건축면적	826.67 m ²	1,766.00 m ²	888.96 m ²	217.89 m ²
건폐율	52.32 %	58.21 %	37.80 %	43.93 %
연면적	2,284.49 m ²	5,474.53 m ²	6,245.10 m ²	377.01 m ²
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지하 2층 ~ 지상 4층	지상 5층	지하 1층 ~ 지상 2층
총 출석 인원수	약. 1,200명	약. 3,000명	약. 5,500명	약. 370명
별관동	- 교육관 (본관동 연결) - 비전센터 (별동)	- 교육관(별동) - 봉사관 (본관동 연결)	- 비전센터 (별동)	- 단독건물

* 각 교회의 부속동 및 별관동은, 본관동(예배당) 건폐율 산정에서 연면적 제외.

2.2 공간 및 활동프로그램 조사

도면분석 및 현장답사를 통해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을 파악하고 활동프로그램의 공간적 연계를 확인하였다. 교회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목사 또는 부목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각 교회별로 두 차례이상 진행하였다. 교회의 공간 배치 및 활용과 신자 및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신자 수 등을 문의하였고 인터뷰내용을 도면분석과 현장답사에서 파악한 상황과 연계하여 교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표 1, 표 2).

[표 2] 교회별 인터뷰 대상자

	서둔교회	수원성교회	명선교회	한사랑교회
인터뷰 대상자	행정목사	행정목사 (부목사 중 수석 목사)	부목사 (부목사 중 대표 목사)	담임목사
인터뷰 일시	2020.6.5. (약 50분) 2020.6.13. (약40분)	2020.6.18. (약 40분) 2020.6.2. (약 30분)	2020.5.23. (약 1시간) 2020.05.30. (약 50분)	2020.5.27. (약 40분) 2020.8.1. (약30분)
역할	- 교회 운영 예산과 예배 및 교육 행정 담당	- 교회 행정 및 교육사업 등 총괄	- 교회 행정 및 교육관리 - 노인 복지 관련 업무 총괄	- 목회부터 ~ 행정까지 전도사님과 함께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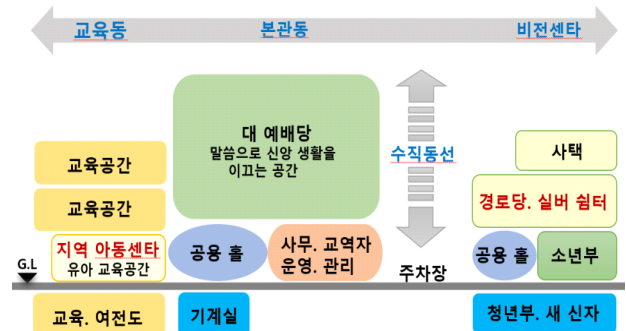
2.3 분석의 틀

교회라는 종교시설이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여 교회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인프로그램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자원을 인터뷰와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공간이 운영프로그램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면 공간을 활용하는 정도가 충분히 높은 것인지 아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사용되는 정도가 거의 없는 곳을 파악하는 것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운영프로그램 일정을 파악하고 [표 3] 인터뷰를 통해 사용이 미진한 곳을 찾아보았다. 교회의 특성상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쓰이는 곳은 거의 없고 모든 공간이 기존의 용도에 더해 추가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까지는 하지 않았다.

3. 교회 공간 활용과 노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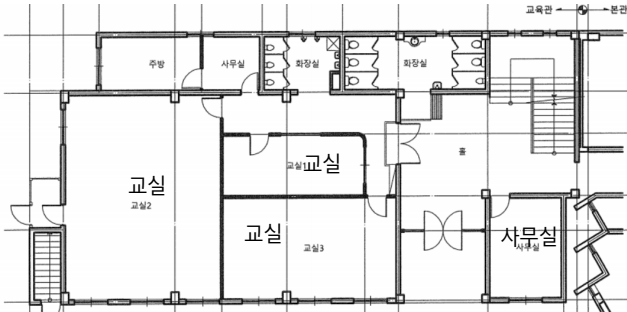
3.1 서둔교회(권선구)

교육동과 인접 필지를 매입하여 지어진 비전센터의 공간적 건축특성을 살펴보면, 공간의 기능에서 수직 프로그램의 구성은 체계적인 활용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된다. 순차적으로 별동으로 가능한 공간에 지어지다 보니 같은 층간에 연결성이 떨어져, 예를 들어 본관의 예배당과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교육하는 공간은 비전센터의 지하에 위치하였다(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1] 서둔교회 배치도 및 프로그램 분석

교육공간의 주기능 역할을 하는 교육동은 수용인원에 대비하여 실의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주 3일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표 3) 유동적인 사용자 수의 변화로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그림 3). 비전센터 역시 교육동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공간의 기능적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교회 전체의 공간들 중 잉여 공간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그림 1), [표 3]). 구시가지에서 1979년에 건설되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유아시설 및 청소년 공간으로는 대체적으로 그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표 3). 비전센터에서 경로당과 건강체조, 치매예방, 고전무용을 배우는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지만(그림 3), 지역 노인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대지를 활용하여, 장래 노인시설의 건축물을 별관으로 증축하려는 계획을 고려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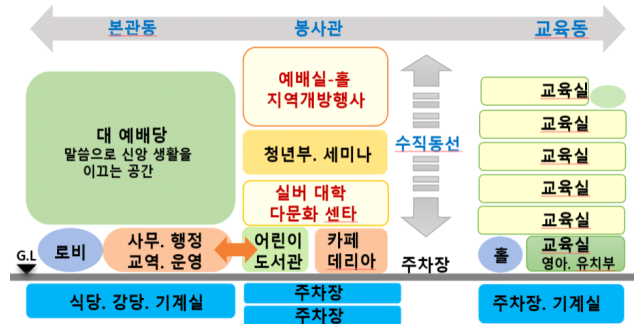
[그림 2] 서둔교회 교육동 지상1층



[그림 3] 서둔교회 비전센터 2층 경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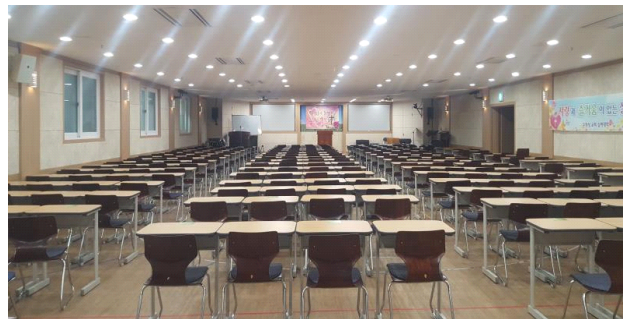
3.2 수원성 교회

'수원성 교회'는 현재 교회가 위치한 지역성을 고려하여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였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관과 지역 젊은 층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동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그림 5). 수원성교회는 교인 수가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서 60세 이상 출석인원이 약 440명으로 노인층 성도들이 많은 것을 이미 고려하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회 부지에 접해있는 대지를 매입하여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4] 수원성 교회 프로그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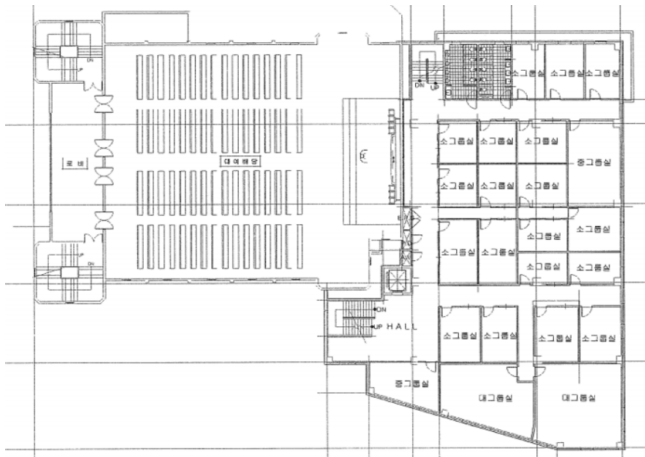
교회 인근에 노인복지관을 교회 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표 5) 노인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심이 많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봉사관으로 운영하는 부속동은 노인을 위한 공간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회관계자 인터뷰에서 작은 규모로 세분화된 실을 포함해 잉여공간이 많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작은 실을 새롭게 계획하게 되면 공간의 효율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그림 7]).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에서 친근감이 증대되는 교회의 이미지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을 위한 공간들을 포함해서 봉사관에 지정되어 있으나 여유로운 공간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림 5] 수원성 교회 봉사관의 실버대학



[그림 6] 수원성 교회 봉사관의 노인국악찬양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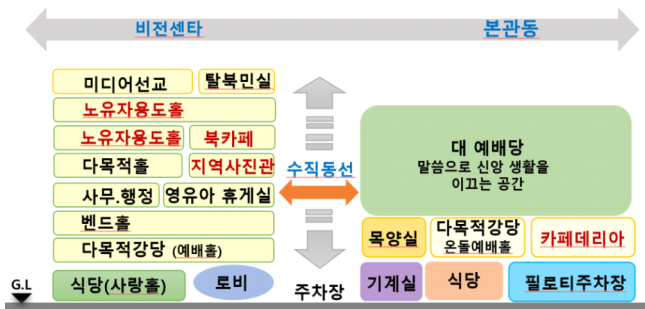
[그림 7] 수원성 교회 본당 및 봉사관 그룹실 지상 2층

수원성교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밤밭노인복지관'을 봉사관등에서 운영하고 있다(표 5). 자체적으로 봉사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노인 국악찬양 교육,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의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표 4).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 매입한 인접부지에 장래에 파생될 노인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별관으로 건축하여 운영한다면,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봉사관과 교육관 공간의 잉여공간을 활용하면, 이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에서의 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3.3 명선교회

명선교회는 수원 영통구와 접경지에 위치하여 있다. 교인 수는 5,500명이 되는 대형교회이며, 그중 78%는 수원시 영통지구 사람들의 예배당으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지역과 용인 기흥구 신자들이 왕래하는 교회이다. 본관 예배당은 건축 초기 짜임새 있게 공간의 활용성을 잘 구사한 교회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반면에, 최근 지은 비전센터는 본당과 건축적으로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시대를 예측하는 교회의 운영을 엿볼 수 있는 특성으로 비전센터의 기능에 대한 활용성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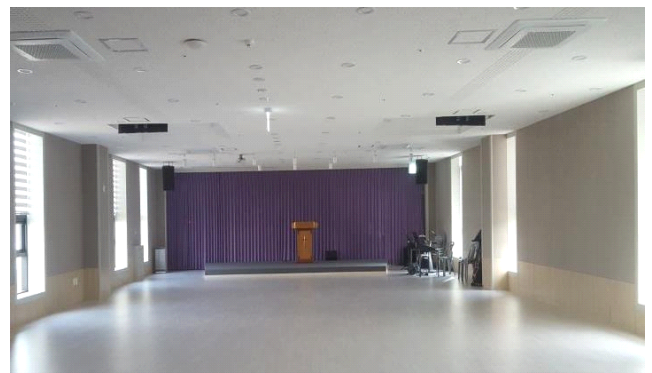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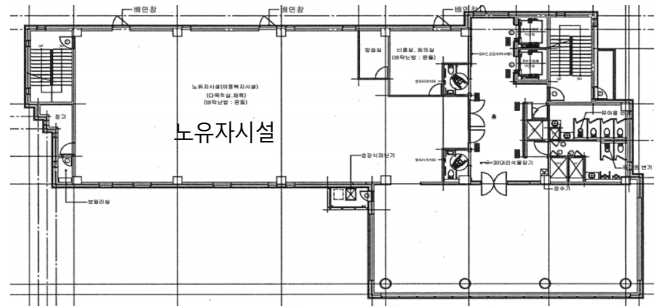
본당의 예배공간은 총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비전센터 동과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8).



[그림 8] 영통구 명선교회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명선교회는 최근 비전센터동의 건축 당시 온돌바닥으로 만들어진 '노유자시설'의 설치 계획을 이미 계획하여 건축한 상황이었다(그림 9). 따라서 약 700명 정도 되는 60세 이상 노인들 중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전센터 6, 7층 등에서 실버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양 및 국악찬양, 건강교육을 하고 있으며 무료급식, 목욕봉사, 반찬 나눔 등의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표 4). 노인 인구증가 추세인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전센터의 각층 공간의 효율성을 주 6일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표 3] 공간계획을 정립하면 그 사용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교회에서 필요한 봉사자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적 인적 지원을, 인터뷰에서 확인된 지역기관과 연계한 운영과 교회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두 가지 의견이 나타나 교인의 만족도와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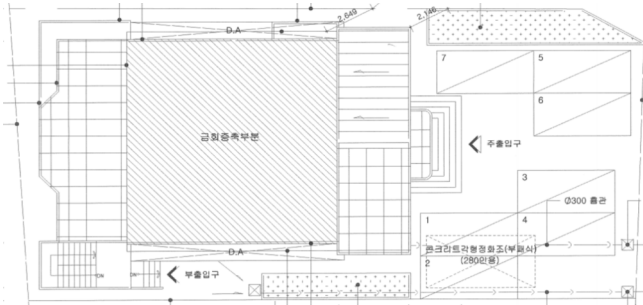


[그림 9] 영통구 명선교회 비전센터 6층 온돌 노유자시설 허가

3.4 팔달구 한사랑교회

한사랑교회는 중형교회이며 교인 수도 약 370명 정도이다. 그러나 신도수가 형성되면서 교회도 함께 건축되어 지역신앙인의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지만, 협소한 대지에 한정된 공간으로 특히 지하 1층에 예배당이 배치되어있는 교회이다. 인터뷰와 현장 답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요구되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는 과제와 더불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교적 열악한 건축적 환경에 처해있어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공간적인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건축법적으로 교회의 증축을 고려하여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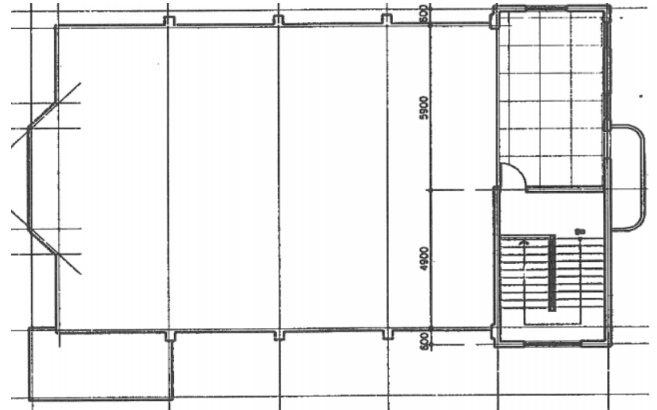
결과 3층과 지상 주차장 지하에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4층의 증축을 고려해 볼 수 있었으며(그림 13), 실들의 효용성을 위하여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교회로서 도심지 중형교회로서 건물이 노후 정도나 규모면에서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0] 팔달구 한사랑교회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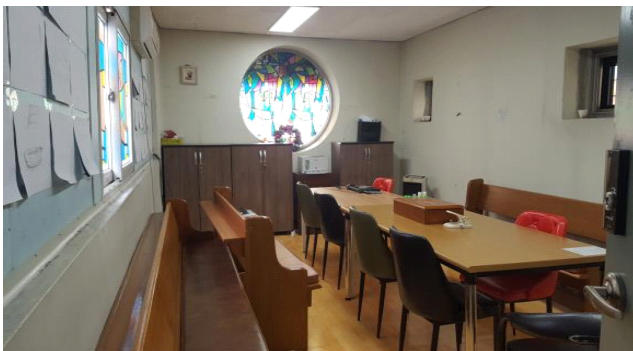


[그림 11] 팔달구 한사랑교회 프로그램분석



[그림 13] 팔달구 한사랑교회 3층(현재 지층층)

현재 노인 친교실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예매가 없는 시간에 운영되는 노인 취미교실과 사랑방이 있고 건강 및 신앙교육을 하는 교양강좌가 운영되고 있다(표 4). 조사과정에서 현재 주2일 운영되는 노인프로그램에 더해서(표 3)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접할 수 있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교회 증축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장년층 성도들로 운영되는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교회의 운영계획으로 노인 수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교회이다. 또한 중형 규모교회에 노인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경우 한사랑교회와 유사한 규모의 교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 교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중형교회의 모델로 노인프로그램의 활용성을 시범 운영해 볼 만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간적 구성을 우선 검토하여 노인프로그램의 활용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2] 노인 취미실(지하, 상), 친교실(사랑방, 하)

[표 3] 조사대상 교회 공간사용빈도

	서둔교회	수원성교회	명선교회	한사랑교회
공간 사용 빈도	수,토,일요일 (주3일)	화~일요일 (주6일)	화~일요일 (주6일)	수,일요일 (주2일)
사용 시간	오전10시 ~ 오후1시 (예배중심 어린이교육) 오후4시 ~ 9시 (지역-청소년 방과 후 커뮤니티와 예배)	오전9시 ~ 오후9시 (예배중심 유아부터~어린이교육과 직장 어린이집, 청소년 열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오전9시 ~ 오후8시30분 (노인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교인 공유, 방과후 어린이 교육은 나이별 분류 운영)	수요일 오후 3시 ~ 7시 (예배 및 청소년 커뮤니티 운영) 일요일 오전 10시 ~ 4시 (예배 및 어린이 성경학교 등 협소한 공간을 시간별로 운영)
전체 시설 사용 인원	일일 방문 (어린이포함): 180~200명 본 예배: 260명이상 (평균)	일일 방문 (어린이포함): 320~350명 본 예배: 500~550명 (평균)	일일 방문 (어린이포함): 300~400명 본 예배: 600명 (평균)	일일 방문 (어린이포함): 40~60명 본 예배: 100~180명 (평균)

3.5 조사대상 교회의 노인프로그램 운영현황

노인프로그램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성교회로서 전문적인 운영기관인 장로교복지재단에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4] 이외의 교회들의 경우 교회관계자와의 인터뷰와 현장답사에서 자체적으로 건강, 교양, 국악찬양, 모임공간, 무료급식등의 봉사 등 다양한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수원성 교회처럼 전문 운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설치 방향성이나 운영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관리, 빈도,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운영이나 복지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프로그램 관련한 공공기관의 도움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았으며, 타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조사대상 교회의 노인프로그램 운영현황,

교회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용공간
서둔교회	1-노인 다목적 사랑방 운영 2-경로당 3-노인대학 (건강체조, 치매 예방, 고전무용)	(지역주민 공용) (지역주민 공용)
수원성교회	1-밤발 노인복지관 운영 2-노인대학 3-노인을 위한 봉사 활동 (노인 국악찬양 교육, 무료급식, 목욕 봉사, 반찬 나눔, 쌀 나눔)	(위탁 운영) (지역주민 공용) (지역주민 공용)
명선교회	1-실버대학 (교양 및 국악찬양, 건강 교육) 2-노인을 위한 봉사 활동 (무료급식, 쌀 나눔, 목욕 봉사, 반찬 나눔)	(지역주민 공용) (지역주민 공용)
한사랑교회	1-노인 취미교실(예배 없는 시간) 2-노인 사랑방(예배 없는 시간) 3-노인 교양강좌(건강 및 신앙교육)	(지역주민 공용) (지역주민 공용)

수원성 교회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위탁 받은 밤발노인복지관에서 노인시설의 운영은 크게는 교육시설, 건강시설, 자원봉사 프로그램, 주간보호시설의 구성되어 있었다. 교양, 예체능, 컴퓨터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기능, 정신건강관련 상담과 헬스장 운영, 무료급식이나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들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관련자 인터뷰와 현장답사로 판단되었다.

위탁운영 주체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제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지원 프로그램은 활성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공공기관과의 연계 등 공공적인 측면보다는 교회구성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을 위탁운영하는 수원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노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거동의 불편함이나 장애를 배려하여 활동이 용이하게 하는 시설적 여건은 부족하였다.

[표 5] 밤발노인복지관 노인복지 운영 개요

지역교회	밤발노인복지관(수원성교회)
위치	수원시 울전동 230-2
운영방식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위탁 수원성교회 운영 중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 인문, 외국어, 서예, 컴퓨터, 예체능 등 경로당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관리, 여가문화지원, 특별행사, 지역Network, 인적관리 노인종합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치매 예방프로그램, 자서전프로그램, 우울 예방프로그램), 심리검사 주간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치료, 음악치료, 생신잔치, 자체 내·외부프로그램 지역사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급식, 주거환경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복리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식당, 헬스장

4. 토론 및 결론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이윤추구의 목적과 달리 지역사회 등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의 서비스를 검토하고 관련해서 공간과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대상이었던 모든 교회에서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표 3], [표 4]). 구성원이 노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적, 물리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선해야 할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4.1 교회의 물리적 공간 관리

교회는 예배당이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공간이다. 예배당에서의 시설 개선사항이나 규모는 상대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반면 노인프로그램을 위한공간들은 그러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공간 활용과 관련된 인터뷰였으나 공간관리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없다면 교회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과 인터뷰가 진행되었다([표 2]). 어떤 실들이 많이 쓰여서 공간적인 규모면에서 부족하지 또는

사용 빈도가 저조한 실들은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는 등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먼저 언급한 교회 중에는 많은 소규모 실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실들이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 경우나 예배본당 이외에도 복수의 대형 실들을 가지고 있지만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회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예배당이 아닌 부수적인 기능과 관련되는 공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해 시설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역사회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자체 내에서 공간운영 인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지역사회지원기능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공적인 지원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회는 공간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인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이 노인의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에 필요한 공간과 지원인력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4.2 교회의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교회에서 운영되는 노인을 위한 공간은 복지차원에서 고려하기에는 아직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종교시설이라는 한계에도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위한 역할은 교회가 가지는 공간적인 규모나 활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교회 구성원이라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연결망을 통해 복지관련 서비스의 제공자이면서도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구조로서 복지의 공동체적 접근을 구현해 갈 수 있다(김용득, 2018).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공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구성원은 자원봉사 등 노인복지프로그램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의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련 경험이 있는 운영 전문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교회 중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처럼 외부기관의 관리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4.3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교회의 공간의 노인을 위한 활용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지만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세부적인 공간 활용도를 각 교회마다 소수의 교회 관계자와 현장답사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평신도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을 인터뷰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교회내부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후속연구에서 보다 많은 사례를 조사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긍정적인 교회사례를 파악한다면 다른 교회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교회 구성원들은 노인프로그램 도입에 호의적이나 반대로 교회 구성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을 파악해야만 본 연구의 의미와 방향성이 명확해 질 것이다.

사사: 본 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천서진)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참고문헌

김명희, 1999,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교회건축 공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8(3)
 김현미, 2005, "지역주민을 위한 교회건축물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동설, 2011, "교회노인복지 활동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우준, 2005, "커뮤니티센타로서의 교회 공간구성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대현, 2013, "지역사회시설과 연계한 교회건축 공간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서영, 2006,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건축 활용에 관한 연구(순천시 일원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태경, 2009, "지역주민을 위한 교회건축계획에 관한 연구(도시 중 대형규모 교회의 입주후 사용현황)",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호, 2003, "지역사회 봉사와 이용율 증대를 위한 복합교회건축에 관한 연구(교회와 교육복지시설의 복합 형태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환희, 2018,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건축 공간계획의 사례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서진, 2021, "교회건축의 노인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 수원시 중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접수 : 2022년 08월 19일
 1차 심사완료 : 2022년 08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08월 24일
 3인 익명 심사 필